

재정 위기 극복 위한 혁신 본격화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출범… 재정 건전성 확보 착수

전주시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의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재정 운용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은 유지하면서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행정, 시민소통 분야 민간 전문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전주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기구로,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제시, 재정 혁신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조지훈 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9명과 관련 실·국장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에는 강성호 세종연구원 지방재정 분야 정책협력관, 김갑룡 전주대학교



전주시는 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행정, 시민소통 분야 민간 전문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의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계세무학과 명예교수, 김반석 반석세무회계 공인회계사, 남기만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전경민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이민호 법무법인 모와 대표변호사,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최경숙 전북대학교 국제 무역학과 교수, 최한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에 이어 전주시 재정 현황

진단과 위원회 운영계획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례회의를 통해 재정 운용 원칙과 투자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202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시가 재정혁신에 나선 것은 갈수록 심화되는 재정 부담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2조504억 원에서 2026년 2조445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증가분의 61.9%는

용도가 정해진 국·도비 등 특정 재원으로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은 크게 늘지 않았다.

특히 올해 의무지출 규모는 1조1746억 원으로 자부재원 1조163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방채 잔액은 올해 말 기준 6841억 원, 관리채무비율은 2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104개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에 필요한 시비만도 1조7604억 원에 달해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훈 시장은 재정 문제 해결을 민선 9기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달 1일 취임 첫날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민선 9기 1호 결재로 승인하며 재정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재정 위기는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지금 뼈를 깎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재정혁신특위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진단을 바탕으로 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은 철저히 지켜 재정 위기를 반드시 정면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 개최

8일 22개 팀 250여명 선수단 3개 부문 참가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축구 대회가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가 개발된 드론축구 종주도시 전주에서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8일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와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에서 ‘2026 제9회 전주시장배 전국 드론축구 대회’를 개최한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대한드론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세미프로와 마스터즈, 챌린저스 등 3개 부문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22개 팀, 2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화려한 드론 비행 기술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회 당일 오전 11시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 2층 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세미프로 팀인 ‘야크’와 ‘챌린저’의 박진감 넘치는 시범식전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개회사와 축하, 주요 내빈과 선수 대표가 함께하는 ‘드론축구부 사축’ 등으

로 꾸며진다.

본 경기는 세미프로 리그와 챌린저스·마스터즈 리그로 나눠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참가팀들은 오전 예선전을 거쳐 오후 2시부터 본선 4강전과 결승전을 차례로 펼치게 되며, 부문별 우승 팀을 포함해 총 15개 팀에 전주시장상, (사)대한드론축구협회장상과 함께 총 1800만 원 상당의 상금 및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들의 뜨거운 경기 외에도 관객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 1층 전시체험장에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VR 드론축구 시뮬레이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경기장을 찾는 누구나 VR 기술을 활용해 드론축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4일간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되는 ‘2026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연례회의’에 참가해 세계 음식창의도시들과 지속가능한 음식문화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간 글로벌 협력 확대

말레이시아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연례회의 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식도시인 전주시가 전세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4일간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되는 ‘2026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연례회의’(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Gastronomy Annual Meeting 2026)에 참가해 세계 음식창의도시들과 지속가능한 음식문화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음식문화와 관광,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시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표 음식창의도시로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고, 국제 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는 도시별 사례 발표와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전주비빔밥을 중심으로 한 음식문화 콘텐츠 육성 △전주한상 브랜드 구축 △전주비빔밥축제 운영 △음식문화 기반 관광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음식문화 정책 등을 소개해 참석한 음식창의도시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시는 전주의 대표 음식과 관광 자원, 한식문화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전주가 가진 천년 역사와 문화, 음식이 어우러진 도시의 매력을 세계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이만호 기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전주시, 하반기 16대 선착순 접수

전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전주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

착사업에 총 1억 원을 투입해 31대 차량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 상반기에도 총 15대를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 사업 물량은 약 16대로,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다.

특히, 시는 올해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으로 전주시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과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의 약 0%가 지원되며,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을 제외한 차량은 약 10%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전주시라플 현장 홍보 박차…가맥축제서 홍보부스 운영

전주시가 여름 휴가철과 축제 기간을 맞아 지역 골목시 플랫폼인 ‘전주시라플’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현장 홍보 활동에 나섰다.

시는 6일부터 오는 8월까지 3일간 전북대학교 복합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6 전주가맥축제’ 현장에서 전주시라플 대규모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축제장 내 전용 홍보부스를 설치해 음주 방목객의 안전한 귀가를 돕고, 현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플랫 이

벤트’를 진행해 택시 할인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전주역 광장에서 KTX 이용객과 여름철 피서객,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주시라플 신규 가입 유치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는 이날 무더위를 식혀줄 얼음물과 QR코드가 탑재된 홍보 부채를 배부하며 앱 설치 및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에서 1:1로 어플 설치와 본인인증 과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실시

전주시가 기상이변에 따른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생산 안정성을 위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지원하고 나섰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은영)는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과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 총 7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총 4회에 걸쳐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

지 지역농협을 통해 공동방제 신청을 받았으며, 올해 벼 재배 농지 940ha, 870여 농가를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대상 농지에는 지난달 말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1차 공동방제가 실시됐으며, 이어 이달 4~7일까지 2차 방제가 추진중이다. 또, 오는 8월 말과 9월 초에 3~4차 방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고령화로 영농 인력이 부족한 농업 현장을 위해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